FX Market Daily

2026-08-13

전일동향

전일대비 4.80원 상승한 1,418.50원에 마감

12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,416.00(15:30 기준) 대비 3.50원 하락한 1,412.5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
환율은 계속해서 나오는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에 하락했으나 간밤 강달러 압력 받으며 전일대비 4.80원 상승한 1,418.5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7.6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87.42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412.50	1419.00	1411.40	1418.50	1415.00
엔화	891.12	892.50	884.89	887.42	-
유로화	1632.85	1638.51	1626.77	1634.73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0.54	-2.43	-6.33	-13.17
결제환율(수입)	-0.24	-1.32	-4.16	-9.43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강달러 지지력에...1,41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6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15.70, 15:30 기준) 대비 2.45원 상승한 1,417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미국 물가 안도감에도 중동 리스크 및 달러 지지력에 제한적 상승할 전망이다. 전주 고용지표에 이어 간밤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도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다소 약화되었다. 이는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, 여전히 일정 수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자 간밤 달러화는 강세 마감했다.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하고 있어, 달러 지지력이 유지되면서 금일 달러/원 환율은 상승 전망한다. 또한, 역내에서는 수입업체 결제와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환전 등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꾸준히 받쳐줄 전망이다.
다만, 상단에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적극 출회되고,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13.00 ~ 1424.0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8353.92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45원↑
	■ 美 다우지수 : 53770.27, -21.58p(-0.0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11.14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918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